

순천시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힘든 어르신들 위한 치매친화마을 만들어

작업치료·인지재활치료·뇌건강체조 등 프로그램 진행

순천시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가가호호 찾아가는 쉼터 등 2021년 찾아가는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치매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센터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감을 개선하고, 치매 인식개선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찾아가는 치매 프로그램’은 황전면, 상사면 등 보건지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각 가정으로 찾아가 작업치료, 인지재활치료, 뇌건강체조,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어르신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상사보건지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해룡 서가·별량 용두·도사 월곡·서면 판교 마을 등에서 매주 가가호호 찾아가는 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치매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치매환자와 가족, 주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록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진도군 조도면, 장애인가구 청소 봉사 활동

방충망 교체·주택 벽면·창문·창틀 등 집안 전체 대한 청소 실시

진도군 조도면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했다.

이날 공직자 자원봉사자,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20여명이 참여해 방충망 교체와 주택 벽면, 창문, 창틀, 씌크대, 화장실 등 집안 전체에 대한 청소를 실시했다.

또 식수와 음료 등의 물품을 전달하고 집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도 함께 실시했

다. 조도면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를 발굴해 도배·장판, LED등 교체, 방충망 수리·보급, 침구류 세탁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조도면 복지팀 관계자는 “취약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기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화순군, 코로나 우울 극복 비대면 상담 서비스 운영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카카오톡 채널 상담

화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군민들을 위해 전화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먼저, 전화(☎1577-0199)로는 사례관리 등 일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전문의 심층면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

약을 하면 정신건강 전문의로 구성된 ‘마음건강주치의’와 1:1 상담, 정신건강 정보, 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검색해 ‘친구 추가’하면 된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정신건강 정보 제

공, 1:1 맞춤형 채팅을 통해 방문이 어렵고 개인 정보 공개를 꺼리는 주민들에게 비공개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1일까지 채널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전남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전남도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애초 계획 대비 91%의 이용률을 기록함에 따라 올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도입했다. 국가로부터 복권기금(70.8%)을

지원받아 도비와 시·군비를 더해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1장으로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전남에 있는 1200여 가맹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남에선 8만6000여 명이 70억 5236만원 규모를 이용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만9000명 40억9273만원, 남성이 3

만7000명 29억5963만원을 사용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관처인 전남문화재단과 22개 시·군이 가맹점을 확대 발굴하는 등의 노력으로 예산 대비 이용률 91% 이상을 달성했다.

올해는 11억7100만원이 늘어난 89억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인당 카드사용 한도액을 지난해 9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올렸다.

김정환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